

광산구, 더 크고 넓은 청년정책 박차

청년주거독립실 조성 운영 착수 작업실·주거시설 갖춘 4층 건물 일자리 사업·월세 지원 등도 추진

광주 광산구가 청년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청년의 자립과 주체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주거독립실 조성,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청년주거독립실은 교육, 일, 훈련에서 벗어난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f Training)' 쪽을 위한 청년 활력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광산구는 2020년 광주도시공사, 광주지역문제 해결플랫폼과 청년주거독립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핵심 거점 공간 마련에 나서고 있다.

내년 6월 개소를 목표로 우산동에 카페, 주방, 프로그램실 등 청년작업장과 공유 주택(개인 주거 공간 26호)을 갖춘 4층 건물을 세울 계획이다.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중이며, 이르면 오는 8월 착공한다. 광산구는 니트 청년의 삶터이자 일터, 놀이터, 배움터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광산구는 그동안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해 민관 협력 TF를 운영해 왔으며, 청년이 사회 주체로 우뚝 서는 데 필요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 공동 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돕기 위한 사항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공간 설계안을 모색 중이다.

광산구는 특히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공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과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 돼 17억 8100만원의 관련 사업비도 확보한 상태다.

구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광산구 소재 친환경 신사업 분야 중소·중견기업과 구직 희망 청년을 연결하는 '청년 미래 삶 일경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최대 2년간 월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 청년에게는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중소기업 청년 잡스쿨(job-school) 취업연계 지원사업, 청년창업 활력플러스 지원사업까지 총 3개 분야 76명의 청년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지난해 39개 기업, 3228명의 청년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성황을 이룬 청년일자리 박람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청정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고민 해결

을 돕기로 했다.

광산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는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올 상반기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청년의 활발한 정책 참여도 적극 지원한다.

광산구는 지난해 출범한 제1기 청년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네트워크 운영, '청그림(청년이 그린 내일)' 청년총회를 거쳐 ▲광산ON을 활용한 청년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내손안의 건강상담소' ▲청년동아리 발굴과 활동 장려를 위한 '광취다 플랫폼' ▲청년의 부채상담 서비스 '광산구 청년 은행 등 청년정책을 발굴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청년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워크숍과 간담회 등 다양한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은 거점이 된 청년라운지를 '우리동네 청년-활력장'으로 확장하는 한편 청년이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새로운 사업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청년은 지역 활성화, 공동체 회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체"라면서 "청년이 바라고,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재외동포 포용법 관련 고려인마을 정책 간담회

이용빈 의원 "무국적 동포 포용"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4일 광주진료소 1층에서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과 관련해 온라인 주민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이날 온라인 간담회에는 이용빈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 등 재외동포 20여명, 법무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재외동포 포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재외동포 포용법은 일제강점기 해외로 강제이

주된 국적을 상실한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용하고, 동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려인 마을 주민과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선 재외동포의 아픔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입법 발의 안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고려인은 이역만리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다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를 안고 있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앞장섰던 선조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듯, 그분들의 자손이 자랑스런 대한민국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주요 산책로 8곳

'안심 공중화장실' 신축

비상벨·안심스크린 등 설치

광주 광산구가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 공원 등에 범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사진)을 신축한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신축 장소는 역산근린공원 등 4개 공원과 풍영정천변, 신촌동 메타세콰이어 길 등 산책로 4곳 등 총 8곳이다.

새로 짓는 공중화장실에는 모두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안심스크린 등 안전장치가 설치된다.

광산구는 또 민간개방화장실 4곳을 선정해 노후화한 시설도 개선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원과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실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상생경제 전국 최고 지자체 선정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광주 광산구가 '제1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大賞)'에서 상생경제 분야 우수사례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여 전국 시·군·구

의 생산성지수를 측정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사람중심 포용사회', '환경안전',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 '상생경제' 4개 분야로 나눠 실시됐으며, 광산구는 지역금융기관과 추진한 '1% 희망대출' 사업 등으로 우수상을 받게 됐다.

광산구는 2020년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기

에 처하자 광산경제혁신회의, 지역상호금융기관과 함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 저리도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1% 희망대출'을 추진했다. 지난해까지 총 4차에 걸쳐 648명에게 46억 원의 대출 혜택을 줬다.

광산구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위기에서 지역상호금융기관들과 힘을 합쳐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경비원 인권 규약·휴게 공간·휴가비 지급

광산구 아파트 인권 지키는 마을자치 실현

광주 광산구의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미화·경비노동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9일 광산구에 따르면 46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광산구 첨단 '금호어울림더테라스' 아파트는 2020년 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 처우 및 인권 존중', '경비원 업무의 범위 및 근무환경 조성',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항을 명시했다.

아파트 주민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을 없애는 대신 쾌적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택배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인택배함 설치, 전기 오토바이 제공 등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꿨다. 또 경비원들에게 명절 상여금과 선물세트를 지급하고, 여름철 휴가 때는 휴가비도 지급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특히 2019년부터 '천원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경비원, 관리인, 미화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자발적 모금을 실시해 '상생하는 공동체'의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신창6차호반베르디움 아파트(이하 신창호반6차), 수완6차대방노블랜드 아파트(수완대방6차)도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동인권 보호 및 주민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주택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광산구 아파트의 인권 존중 포스터.

신창호반6차는 전 직원 야유회, 연말 선물세트, 안전화 제공을 비롯한 보조근무 시 수당 등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수완대방6차는 2019년 위탁관리리지관리로 전환하고정규직근로계약체결을 통해 경비원 등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실현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이들 아파트3곳을 '2021년 인권 우수실천 단지'로 선정했다. 신창호반6차는 최우수상을, 수완대방6차는 우수상을 받았고, 첨단금호어울림더테라스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직과 단절의 공간인 아파트를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마을 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한 광산구의 정책적 노력과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만들어 낸 성과물이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향작지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1509001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